어린이 책꽂이

▲헨리의 자유상자=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감동실화. 자유를 찾기 위해 좁은 상자에서 숨과 희망을 틀어 막고 버틴 헨리 브라운의 여정이 펼쳐진다.

〈뜨인돌 어린이·9천800원〉

▲거짓말 세마디=거짓말 세마디로 재상의 딸을 베필로 맞은 평범한 총각의 유쾌한 이야기. 높은 신분의 재상과 가진 재주라고는 거짓말 밖에 없는 평범한 총각의 흥미진진한 대결을 통해 결혼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낸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우리 풍속 100=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속들과 한번쯤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어 봤음직한 풍속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설날, 백중 등 각 명절의 유래와 민속놀이, 관례와 장례 등이 알기쉽게 정리됐다.

〈예림당·9천원〉

▲어린이를 위한 성취=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성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풀어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대로 사는 초등학생 유주에게 어느 날 꿈이 찾아온다.

〈위즈덤 하우스·9천원〉

▲우리 한옥에 숨은 과학=한옥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학을 판타지 동화 형식으로 알려준다. 우리 한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과학적 의미들이 숨어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미래아이·9천원〉

‘무일푼’ 히피 부부가 쓴 배낭 여행서

론리 플래닛 스토리 토니·모린 휠러 부부 지음

전 세계에서 500종이 넘는 여행 책을 발간해 700만부 이상 판매하는 세계 최대 여행 전문 출판사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 책은 ‘론리 플래닛 시리즈’를 만든 토니와 모린 휠러 부부의 인생과 비즈니스, 그리고 여행담을 담고 있다. 무일푼의 히피 부부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안내서를 발행하게 됐는지, 왜 그토록 많은 여행자들이 론리 플래닛을 들고 순례 길에 나서는지 책속에 찾을 수 있다.

2003년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아 발리 여행 중 전통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 오른쪽이 토니 휠러씨다

“내가 과연 직장이라는 것을 원했던가?, 모린과 나의 꿈이 과연 ‘아홉시 출근, 다섯시 퇴근’ 인생일까?… 마침내 우리는 진로 문제를 잠시 미뤄 두고, 1년간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20쪽) 1972년 65파운드를 주고 산 고물 미니밴을 몰고, 두 사람은 유럽대륙과 아시아를 가로질러 호주에 이른다.

시드니에 도착하자 수중에 남은 돈은 단 27센트. 하지만 휠러 부부는 고향에 돌아갈 생각 대신, 낯선 곳에서 좌충우돌 살아남는 길을 택한다. 그런데 이런저런 관계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던지는 질문은 그들의 여행에 관한 것. “정말 히치하이크로 태국을 통과할 수 있어요?”,“인도 열차는 그렇게 열악한가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런 정보를 그냥 나눠주고 말 게 아니라 팔아 보면 어떨까.” ‘론리 플래닛’은 그렇게 탄생했다.

주중엔 손으로 글을 써두고 주말에 빌린 타자기로 타자를 치는 작업을 통해 부부는 책을 완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책의 이름은 ‘아시아 횡단 알뜰여행’(Across Asia on the Cheap)으로 정해졌고 출판사 이름은 토니가 흥얼거리던 노래 가사 속에서 힌트를 얻어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외로운 행성)으로 정해졌다. (66쪽)

첫 책을 낸 후 휠러 부부는 다시 새로운 가이드북을 쓰기 위해 여행을 계속하는 한편, 맨손으로 시작한 출판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나간다. 얼마 되지 않은 경비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필사적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와선 직접 지도를 그리고 글을 쓰면서 책을 만들어 갔다.

여행을 향한 열정과 도전의식은 정확하고 꼼꼼한 정보를 담은 혁신적인 가이드북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론리 플래닛 가이드북’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상업적인 성공과 더불어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여러 상을 수상했다.

현재 ‘론리 플래닛’은 세 대륙에 걸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명의 직원과 350명의 필진을 거느리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으며 또한 엄청난 방문자 수를 자랑하는 인기 웹사이트(www.lonelyplanet.com) 및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책은 한 기업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한편으론 장편의 여행기이기도 하다. 책의 대부분을 집필한 토니 휠러는 특유의 유머 감각과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하며 모린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부터 여행을 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종횡무진 들려준다. 가족 간의 갈등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해 가는 여행자로서의 심경 변화 등 진솔한 고백도 빼놓지 않는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20대 젊은 부부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소회와 감정을 현장감 있게 쓴 여행 에세이로도 손색이 없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 일에 매진해 경이적인 성공을 이루고 평생 그 일을 업으로 삼은 휠러 부부. 그들의 이야기는 삶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열정의 불씨를 지필 살아있는 신화다.

〈안그라픽스·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홍자성 ‘채근담’

연말이 되니 스쳐간 수많은 인연과 추억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고교시절 문예반에서 시를 쓰느니 산문을 쓰느니 하면서 우왕자왕 할 때 ‘세계의 명시선’ 만은 책가방에 꼭꼭 넣고 다니던 일이 생각난다.

‘거리에 비가 오듯 내 마음속 눈물은 흐른다’로 시작되는 ‘거리에 비가 오듯’ 이라는 폴 베를네느의 시를 친구들 앞에서 줄줄 외며 문학 소년으로 멋 부리기도 했다.

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첫 번째 편지를 읽으며 “당신에게 글을 쓰도록 명하는 그 근거를 캐십시오. 나는 글을 꼭 써야만 하는가”라는 싯구를 읽으며 시를 꼭 써야하는 나름의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해 끙끙대던 시절도 있었다.

그림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던 가난한 대학시절에 서예를 접하게 되었고, 스승이신 송곡 안규동 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선생의 “서예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채근담’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에 곧장 서점에 들려 책을 산 후 삶의 지침서처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으니 내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책이라 하겠다.

녹슬지 않는 ‘삶의 지침서’

동서고금의 많은 서적 중에서도 군계일학처럼 내 정신을 붙잡았던 채근담이야 말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책이다.

채근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지은 어록집이다.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 도교의 사상을 가미 현실과 속세 속에 살며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또 타성에 젖기 쉬운 세상에서 찬물을 끼얹듯 자신을 일깨우게 하고 명리를 구하되 천박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고상한 경지를 지향하되 교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는 유연함을 갖도록 깨우쳐 주고 있다.

“복이란 억지로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마음속에 즐거움을 길러서 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요. 불행은 피한다고 절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없이하여 불행을 멀리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이를 도울 것이다. 하늘이 내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나의 도를 형통케 하여 그 길을 열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더 어떻게 하랴. ”

힘든 시기가 있으면 나는 늘 채근담에 나온 이 구절을 읽고 또 읽는다.

채근담은 운명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모든 비법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으며 자기수양과 마음공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을 사는 천년의 충고가 소리없는 울림으로 가득하고, 달빛 같은 일깨움으로 자아성찰을 돕는다.

책의 제목처럼 담백한 무의 뿌리를 하나씩 캐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단맛이 나도록 하는 그런 책으로 오래도록 늘 곁에 둔 문방의 벗이자 나의 오랜 스승으로 여기고 있다.

정광주 〈광주미술협회 회장〉

제 54회 현대문학상 수상작 모음

파타고니아 외 1권 마종기·하성란 지음

제 54회 현대문학상 수상 작품집 ‘파타고니아의 양’과 ‘알파의 시간’이 나왔다.

시 부문 수상자인 마종기 시인의 ‘파타고니아의 양’이 실린 시집에는 표제작 등 마 시인의 작품 7편과 후보작이었던 문태준의 ‘물끄러미’, 조용미의 ‘층층나무의 계단’ 등의 작품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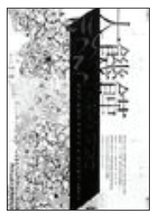
소설집에는 수장자인 하성란 작가의 표제작을 비롯해 하 씨가 직접 뽑은 자신의 대표작 ‘그 여름의 수자’와 후보작이었던 김숨의 ‘모일, 저녁’, 박민규의 ‘근처’, 최수철의 ‘갓길에서의 짧은 잠’ 등이 실렸다. 또 윤대녕의 ‘대설주의보’, 성석제의 ‘해설자들’, 김경옥의 ‘러닝매’ 등 역대 수상자의 최근작도 만날 수 있다.

〈현대문학·시집8천 500원, 소설집 1만 1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시대 최악의 재난과 사회상 고찰

대기근, 조선을… 김덕진 지음



기후로 17세기 조선의 역사를 살핀 독특한 책이 나왔다.

조선 후기 경제사를 주로 연구해 온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경신대기근’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를 살핀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를 펴냈다.

‘경신대기근’은 1670~1671년(현종 11~12년)사이 두 해에 걸쳐 발생한 대기근으로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전염병과 가축병까지 겹쳐 무려 1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저자는 16세기 사림시대나 18세기 중흥시대 중간에 자리 잡은 17세기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연구가 미진했고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라고 주장한다. 책은 당시 민심과 정치세력의 동향에도 주목했다. 당시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고 정치세력의 계보를 작성하는 등 대기근에 투영된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푸른역사·1만6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롬!!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촉 목포점 개원 12月15日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하당지구 대성학원 건물 3층 (061)277-8111
개강 매월 1日(주,야) 기초 12月·기본서 1月 2日부터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국비지원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확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_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 · 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 개강일전 마감
본원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첨단점 ☎971-0002 (구)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교세관법검철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안내
◉시험일자 :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 시행
◉채용인원 : 국가직 3,200명 모집-지방직 예년수준
※공무원시험에 내년 1월1일이후 부터 응시상한 연령폐지
개강 12월15일 (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 90만원(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www.mdgosi.co.kr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